

마가복음의 예수님(37) -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막 8:22-26)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께서 벳새다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이었다(22절).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손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맹인을 따로 데려다가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1.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맹인의 삶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였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무는 행동이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식이나 계명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이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자.

2. 기독교는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은 단지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사35:5). 지금까지는 육안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고후5:17).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한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즉 교환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특별한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는데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번 안수하셨다(23-25절).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은 영안이 열리는 두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두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환된 새로운 존재로 영안을 계속 열어가자.

3.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당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첫째도, 둘째도 영적인 질병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으로 눈 먼 우리를 밝히 보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수련장도, 교육장도, 철학관도 아니다. 기독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곳이다. 아니 기독교는 예수님 그 자체다. “마을”은 맹인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세상을 나타낸다. 불신의 장소, 죽음의 장소, 죄악의 장소로부터 나와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의 왕이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자.

마가복음의 예수님(37) -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독교(막 8:22-26)

1. 마음 열기 -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80장,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위-에뛰어난-이름 예수는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주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기독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던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했던 일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에 걸쳐 맹인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 다음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십니다. 최근에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영안이 열려 새롭게 깨닫게 된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3) "몽골단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